

WEBVTT

00:00:11.008 --> 00:00:11.918

반갑습니다.

00:00:12.018 --> 00:00:13.103

진민 쌤이고요.

00:00:13.203 --> 00:00:16.121

이제 바로 이어서 갈게요.

00:00:16.221 --> 00:00:21.345

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계
기회비용, 편익 비용 분석.

00:00:21.445 --> 00:00:24.945

그리고 외부 효과, 각종
공공재 부족 현상.

00:00:25.045 --> 00:00:29.234

그런 시장 실패 현상까지 일단
개념을 쪽 봤습니다, 맞죠?

00:00:29.334 --> 00:00:33.083

그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
심화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

00:00:33.183 --> 00:00:35.373

몇 개 좀 내용을 더
설명해드릴 거예요.

00:00:35.473 --> 00:00:40.544

여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만
더 보고 퀴즈도 한번 보고

00:00:40.644 --> 00:00:44.196

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계속
이어가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0:44.296 --> 00:00:46.791

교안 순서대로 오시면 돼요.

00:00:46.891 --> 00:00:48.337

볼까요?

00:00:48.836 --> 00:00:51.536

일단 합리적인 선택의 사례라고 해서

00:00:51.636 --> 00:00:56.060

이제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제가
조금만 바꿔봤습니다, 보죠.

00:00:56.160 --> 00:00:59.554

일단 예를 보면 진민이, 저예요.

00:00:59.654 --> 00:01:02.019

진민이는 현재 알바중이다.

00:01:02.119 --> 00:01:06.622

한 시간 당 시급

6500원을 받고 있다.

00:01:07.380 --> 00:01:14.761
지금 최저임금법에 비추어보면 이
알바 사장님은 감옥 가지겠네요.

00:01:14.861 --> 00:01:16.194
농담이에요.

00:01:16.294 --> 00:01:18.209
시급 6500원입니다.

00:01:18.309 --> 00:01:21.955
오늘 저녁에 친구들이
영화 보자고 하는데

00:01:22.055 --> 00:01:26.411
알바 시간과 겹쳐서 하나를
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

00:01:26.511 --> 00:01:28.134
왜 선택해야 되죠?

00:01:28.234 --> 00:01:30.051
두 개를 다할 수 없으니까.

00:01:30.151 --> 00:01:34.080
친구들과 영화를 보려면
알바 시급 포기해야 되고

00:01:34.180 --> 00:01:39.029
돈 벌려고 알바를 할 거면 친구들과
영화 보는 걸 포기해야죠.

00:01:39.129 --> 00:01:44.428
이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
선택과 포기의 문제입니다.

00:01:44.528 --> 00:01:45.527
오케이?

00:01:45.627 --> 00:01:52.670
영화 보려면 알바 두 시간 빼야
되고 영화 티켓은 8000원.

00:01:52.770 --> 00:01:57.621
만약에 진민이가 친구들과
영화를 관람하기로 했다면

00:01:57.721 --> 00:02:02.064
영화 관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
편익과 만족감이 있어야

00:02:02.164 --> 00:02:05.763
합리적 선택이 될 거냐,
라는 건데 간단하죠.

00:02:05.863 --> 00:02:06.745
보세요.

00:02:06.845 --> 00:02:12.554

합리적인 선택은 공식도 아닌
공식 같은 건데 봐 봐.

00:02:13.016 --> 00:02:17.997
뭔가를 선택해서 얻어지는 만족감,
그 효용 가치가 편익이었죠.

00:02:18.097 --> 00:02:24.374
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
기회비용의 값이 있었습니다.

00:02:24.517 --> 00:02:27.229
이 기회비용이 무슨 뜻이었어요?

00:02:27.329 --> 00:02:30.848
포기되는 가치 중에서 가장
큰 가치가 기회비용이었죠?

00:02:30.948 --> 00:02:34.939
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
당연히 뭐가 커야 됩니까?

00:02:35.039 --> 00:02:39.956
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
커야 합리적인 선택이다,

00:02:40.056 --> 00:02:43.507
효율적인 소비라고
평가할 수가 있는 거였죠.

00:02:43.607 --> 00:02:45.408
그러면 봐 봐요.

00:02:45.508 --> 00:02:50.242
일단 교과서 예제
같은 건데 살짝 봐 드릴게.

00:02:53.311 --> 00:02:56.548
봅시다, 첫 번째요.

00:02:56.648 --> 00:03:00.991
일단 영화 티켓 구입비용,
이게 명시적 비용입니다.

00:03:01.091 --> 00:03:02.711
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.

00:03:02.811 --> 00:03:05.021
명시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뭐니까?

00:03:05.121 --> 00:03:09.991
내가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
명시, 눈으로 보인다, 그렇죠?

00:03:10.091 --> 00:03:13.552
그 비용 지불이 눈으로
확인된다, 이런 뜻인 거죠?

00:03:13.652 --> 00:03:19.222
그러면 티켓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
당연히 티켓은 8000원이었습니다.

00:03:19.322 --> 00:03:20.986
맞죠?

00:03:21.086 --> 00:03:23.683
이게 명시적인 비용일 거고요.

00:03:24.836 --> 00:03:28.001
다음 영화 관람으로
포기한 가치도 있죠.

00:03:28.101 --> 00:03:29.629
이게 암묵적인 비용이었잖아.

00:03:29.729 --> 00:03:32.925
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암묵적인
비용은 당연히 뭐겠어요?

00:03:33.025 --> 00:03:36.973
내가 영화를 안 봤다면
2시간 동안 알바할 거고

00:03:37.073 --> 00:03:39.829
시급 6500원짜리 알바니까

00:03:39.929 --> 00:03:43.574
2시간 치의 임금을 내가
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

00:03:43.674 --> 00:03:46.414
그걸 포기하고 영화를
보러 간 거잖아, 맞지?

00:03:46.514 --> 00:03:51.300
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은 시급
6500원입니다, 시간당.

00:03:51.400 --> 00:03:53.222
그런데 2시간이잖아요.

00:03:53.322 --> 00:03:55.246
그러면 1만 3000원이죠, 뭐.

00:03:55.346 --> 00:03:58.548
되게 간단해요, 이해가 되나?

00:03:58.648 --> 00:04:01.059
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?

00:04:01.159 --> 00:04:04.529
기회의 비용이라는 개념은
저번 시간에 배웠지만

00:04:04.629 --> 00:04:09.016
이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
비용을 포함하는 거죠.

00:04:09.116 --> 00:04:11.409
그러니까 당연히
기회비용은 얼마예요?

00:04:11.509 --> 00:04:12.382
더하면 돼요.

00:04:12.482 --> 00:04:14.996
그러면 2만 1000원.

00:04:16.597 --> 00:04:18.026
아주 간단하죠, 그렇죠?

00:04:18.126 --> 00:04:23.887
그러면 기회비용이 2만 1000원이니까
당연히 이거보다 커야 되잖아.

00:04:23.987 --> 00:04:26.204
그러니까 영화로부터
얻어지는 편익은

00:04:26.304 --> 00:04:27.991
2만 1000원 이상이어야 되겠죠.

00:04:28.091 --> 00:04:29.711
이것보다 훨씬 더 커야

00:04:29.811 --> 00:04:33.128
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
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

00:04:33.228 --> 00:04:34.866
이해되겠습니까?

00:04:34.966 --> 00:04:37.720
어렵지 않아요, 할 만하죠?

00:04:37.820 --> 00:04:44.749
명시적인 비용과 묵시적인 비용을
반드시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.

00:04:44.849 --> 00:04:47.024
오케이?
다음요.

00:04:47.124 --> 00:04:52.128
외부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
설명해드릴게요, 조금만.

00:04:52.228 --> 00:04:56.132
제가 이 설명을 깊게 안
해드려서 조금만 볼게요.

00:04:56.232 --> 00:05:01.708
일단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
한 현상 중 하나였었죠, 그렇죠?

00:05:01.808 --> 00:05:04.122
독과점 시장도 있었고,
불안정 경쟁.

00:05:04.222 --> 00:05:06.804
또 외부효과.
또 하나 뭐 있어요?

00:05:06.904 --> 00:05:12.062
공공재 부족 현상, 이 세 가지가
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인데

00:05:12.162 --> 00:05:14.705
그중에서 너희가 좀
어려워할 만한 개념이

00:05:14.805 --> 00:05:18.326
물론 고2, 고3 올라가면
끝까지 다 배울 거야.

00:05:18.426 --> 00:05:22.445
그런데 아직 통합사회 과정이니까
개념만 조금 보자는 겁니다.

00:05:22.545 --> 00:05:26.154
외부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
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
00:05:26.254 --> 00:05:30.069
일단 외부 경제 그리고
외부 불경제.

00:05:30.169 --> 00:05:32.638
이렇게 두 가지로 개념이 구분되죠?

00:05:32.738 --> 00:05:37.479
외부 경제는 뭐냐, 의도치 않았는데

00:05:37.579 --> 00:05:43.279
제3자한테 긍정적 효과를
가져다주는 게 외부경제야.

00:05:43.379 --> 00:05:46.007
그러면 외부 불경제는
뭐냐, 똑같아요.

00:05:46.107 --> 00:05:53.226
의도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가
없는 제3자한테 어떤 역효과.

00:05:53.326 --> 00:05:56.446
불이익을 주는 거죠.
나쁜 거죠, 쉽게 말하면.

00:05:56.546 --> 00:06:00.142
외부 경제 사례가 가장 쉬운 게
뭐냐하면, 이겁니다.

00:06:00.242 --> 00:06:01.097
봐요.

00:06:01.197 --> 00:06:04.438
꿀벌은 꽃에서 꿀을
모아 가겠죠, 당연히.

00:06:04.538 --> 00:06:09.639
그 과정에서 과일나무에 열매를 맺는데
필요한 수분 활동이 이루어집니다.

00:06:09.739 --> 00:06:12.741

꿀벌이 이런 일을 해주죠,
이게 자연의 섭리죠.

00:06:12.841 --> 00:06:16.572

따라서 과수원 주변에 양봉업자가,

00:06:16.672 --> 00:06:19.736

벌 키우는 양봉업자가
와서 꿀벌을 친다면

00:06:19.836 --> 00:06:24.855

과수원 주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
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어요.

00:06:24.955 --> 00:06:26.608

그렇죠?
왜요?

00:06:26.708 --> 00:06:29.036

꿀벌이 많이 다닐
테니까, 그렇잖아요.

00:06:29.167 --> 00:06:32.604

그만큼 과수 농사가 잘 되겠죠.

00:06:32.704 --> 00:06:34.097

그런데 잘 봐요.

00:06:34.197 --> 00:06:36.221

그러면 양봉업자가 이걸 해주면

00:06:36.321 --> 00:06:39.437

과수원 사장님은 소위
말해서 땡잡는 겁니다.

00:06:39.537 --> 00:06:41.470

그만큼 농사가 잘 될 테니까.

00:06:41.570 --> 00:06:47.512

그런데 그 과수원
사장님이 얻게 된 혜택을

00:06:47.612 --> 00:06:51.483

양봉업자한테 따로 대가를
지급하진 않죠.

00:06:51.583 --> 00:06:52.805

그렇잖아요, 왜?

00:06:52.905 --> 00:06:56.847

우리 과수원 주변에서 벌 좀
키워주세요, 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.

00:06:56.947 --> 00:07:00.775

그리고 양봉업자가 무슨 꿀벌을
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

00:07:00.875 --> 00:07:06.997

이건 그냥 의도치 않았는데 과수원
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거예요.

00:07:07.097 --> 00:07:07.831
그렇잖아요?

00:07:07.931 --> 00:07:10.644
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
효과를 말하는 거죠.

00:07:10.744 --> 00:07:13.594
이걸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.

00:07:13.694 --> 00:07:16.593
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.

00:07:16.693 --> 00:07:19.139
그리고 양봉업자도 훨씬 더
많은 꿀을 얻게 되지만

00:07:19.239 --> 00:07:22.420
역시나 똑같이 대가를
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.

00:07:22.520 --> 00:07:27.463
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도하지
않았는데 양쪽 다 윈윈이 되는 거죠.

00:07:27.563 --> 00:07:31.858
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효과니까
당연히 국가가 나서서

00:07:31.958 --> 00:07:36.409
이런 외부 경제 효과는 적극적으로
장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

00:07:36.509 --> 00:07:40.273
그런데 물론 이런 적극적인
장려가 쉽지가 않죠.

00:07:40.373 --> 00:07:44.780
왜냐하면, 이 외부 효과라는
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

00:07:44.880 --> 00:07:47.317
의도하지 않는 효과를
말하는 것이기 때문에

00:07:47.417 --> 00:07:50.623
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컨트롤
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

00:07:50.723 --> 00:07:54.069
그런데 만약에 이런 외부
경제 효과가 생긴다면

00:07:54.169 --> 00:07:57.063
그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
이런 효과를

00:07:57.163 --> 00:08:01.683
더 촉진시키기 위해서
노력할 필요는 있겠죠, 이해되겠죠?

00:08:01.783 --> 00:08:05.227

이걸 긍정적인 효과라고
하는 것입니까, 오케이?

00:08:05.327 --> 00:08:08.242

반면에 정반대 효과.

00:08:08.342 --> 00:08:10.065

외부 불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

00:08:10.165 --> 00:08:12.011

이제 환경 오염 이야기인데요.

00:08:12.111 --> 00:08:15.345

어떤 사람이나 기업이
오염 물질을 배출해서

00:08:15.445 --> 00:08:18.988

다른 사람한테 손해를
끼치면서도 아무런 손해배상,

00:08:19.088 --> 00:08:23.724

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
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예요.

00:08:23.824 --> 00:08:26.597

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
끼치는 손해에 대해서

00:08:26.697 --> 00:08:29.787

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
하지 않기 때문에

00:08:29.887 --> 00:08:34.455

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훨씬 더
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죠.

00:08:34.555 --> 00:08:37.984

물론 여기서 생산되는 건 뭐예요?

00:08:38.084 --> 00:08:40.106

환경오염 물질이 되는 겁니다.

00:08:40.206 --> 00:08:45.210

그러니까 환경오염 자체는 당연히
부정적인 역효과입니다, 맞죠?

00:08:45.310 --> 00:08:49.541

그런데 이 환경오염의
실제 주인공이 누구냐,

00:08:49.641 --> 00:08:54.557

이걸 콕 찌어서 손해배상을
청구하는 건 많이 힘들어요.

00:08:54.657 --> 00:08:56.438

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

00:08:56.538 --> 00:08:59.882

지금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심하죠.

00:08:59.982 --> 00:09:03.008

누구 때문이에요?
우리 사람들 때문이에요.

00:09:03.108 --> 00:09:08.187

자꾸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
중국발 미세먼지다, 뭐다 해서

00:09:08.287 --> 00:09:10.839

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00:09:10.939 --> 00:09:13.457

분명히 우리 사람들 때문입니다.

00:09:13.557 --> 00:09:18.553

그러면 그 부정적인 역효과에 대해서
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거예요?

00:09:18.653 --> 00:09:19.312

그렇잖아요.

00:09:19.412 --> 00:09:23.713

불특정 다수 시민한테 무슨
n분의 1로 청구할 수도 없고

00:09:23.813 --> 00:09:27.459

이게 외부 불경제의
가장 대표적인 사례죠.

00:09:27.559 --> 00:09:28.857

이해되겠죠?

00:09:28.957 --> 00:09:32.930

대가를 지급하거나 보상을
요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

00:09:33.030 --> 00:09:36.537

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
이건 규제를 해야죠.

00:09:36.637 --> 00:09:39.162

부정적인 역효과니까,
이해가 되겠습니까?

00:09:39.262 --> 00:09:42.598

이런 것들을 외부효과,
라고 하는 것이고요.

00:09:42.698 --> 00:09:46.508

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
실패의 또 한 종류가

00:09:46.608 --> 00:09:50.033

바로 공공재 부족 현상이었죠?

00:09:50.133 --> 00:09:52.406

이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

00:09:52.506 --> 00:09:56.853

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

때문에 한 번만 다시 볼게요.

00:09:56.953 --> 00:09:59.135

공공재 부족 현상의 사례.

00:09:59.235 --> 00:10:04.237

가장 대표적인 게 치안,
국방 서비스 같은 겁니다.

00:10:04.337 --> 00:10:09.377

국방 서비스는 그걸 이용하는
사람 중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과

00:10:09.477 --> 00:10:14.531

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구별해서 혜택을
주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.

00:10:14.631 --> 00:10:15.853

당연하죠.

00:10:16.428 --> 00:10:19.260

대한민국 국군 아저씨들이 계시니까

00:10:19.360 --> 00:10:22.162

우리가 발 벗고 편히 잔다,
이런 말 많이 하잖아.

00:10:22.262 --> 00:10:27.125

그러면 이 국방 서비스는
당연히 대한민국이 세금으로

00:10:27.225 --> 00:10:29.424

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겁니다.

00:10:29.524 --> 00:10:33.020

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
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.

00:10:33.120 --> 00:10:37.550

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좀
더 안전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

00:10:37.650 --> 00:10:42.454

세금을 조금 낸 사람은
위험한 지역에 살게 하고

00:10:42.554 --> 00:10:44.778

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
북한 보낼 거예요?

00:10:44.878 --> 00:10:46.589

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

00:10:46.689 --> 00:10:47.739

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

00:10:47.839 --> 00:10:51.072

경찰 같은 치안 서비스도
마찬가지입니다.

00:10:51.172 --> 00:10:56.817

또는 더 쉬운 실사례는 공원
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, 공원.

00:10:56.917 --> 00:11:01.426
어떤 지역에 공원을 만들면 이걸
분명히 공공 서비스입니다.

00:11:01.526 --> 00:11:03.721
국가가 세금으로 만드는 겁니다.

00:11:03.821 --> 00:11:08.443
그러면 공원에 가서 운동하는 건 모든
시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.

00:11:08.543 --> 00:11:09.215
그렇지 않나?

00:11:09.315 --> 00:11:11.517
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?

00:11:11.617 --> 00:11:12.804
대치공원이 있는 거예요.

00:11:12.904 --> 00:11:15.524
대치동에 공원을 하나 만든
겁니다, 강남구에서.

00:11:15.624 --> 00:11:18.592
그러면 송파구 사람들은
거기 가면 안 돼요?

00:11:18.692 --> 00:11:21.269
그런 게 어디 있어요, 누구나
갈 수 있지 않습니까?

00:11:21.369 --> 00:11:25.310
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
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.

00:11:25.410 --> 00:11:28.416
이걸 비배제성이라고
하는 거죠, 오케이?

00:11:28.516 --> 00:11:31.762
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
다음 두 번째요.

00:11:31.862 --> 00:11:37.033
다른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나의 국방
서비스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.

00:11:37.133 --> 00:11:41.238
또 대치공원에 무슨 송파구
주민들이 가서 운동한다고 해서

00:11:41.338 --> 00:11:44.010
대치공원이 줄어들니까, 사라져요?

00:11:44.110 --> 00:11:45.074
아니잖아요.

00:11:45.174 --> 00:11:48.682

그러니까 무임승차 효과가
발생하는 거죠.

00:11:49.295 --> 00:11:54.158

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
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

00:11:54.258 --> 00:11:56.204

글자 그대로 무임승차.

00:11:56.304 --> 00:11:57.425

공짜라는 뜻입니다.

00:11:57.525 --> 00:11:59.160

이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.

00:11:59.260 --> 00:12:02.523

이로 인해서 당연히 국가가 아닌

00:12:02.623 --> 00:12:05.219

민간 기업은 돈을
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?

00:12:05.319 --> 00:12:07.570

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할 겁니까?

00:12:07.670 --> 00:12:08.465

그렇잖아요?

00:12:08.565 --> 00:12:12.425

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기업은

00:12:12.525 --> 00:12:17.529

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할
이유가 없죠, 그렇잖아요?

00:12:17.629 --> 00:12:22.388

물론 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
돈 많이 벌잖아요.

00:12:22.488 --> 00:12:26.356

그러면 돈 많이 번 것 중에
일부를 사회에 환원시켜서

00:12:26.456 --> 00:12:29.308

예를 들어서 삼성 공원
만들어준 거예요.

00:12:29.408 --> 00:12:32.751

이건 윤리적으로 칭찬해주면
됩니다, 훌륭한 거죠.

00:12:32.851 --> 00:12:37.953

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
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

00:12:38.053 --> 00:12:41.281

공원 같은 것들을 기업이
만들어주는 경우는 없어요.

00:12:41.381 --> 00:12:43.922
어떻게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?
그렇잖아요?

00:12:44.022 --> 00:12:46.695
공원에 들어갈 때 티켓을
끊는 수밖에 없는데

00:12:46.795 --> 00:12:48.519
그러면 공원을 안 가고 말죠.

00:12:48.619 --> 00:12:51.944
그래서 이윤 창출이
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

00:12:52.044 --> 00:12:55.863
이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
생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

00:12:55.963 --> 00:12:57.664
이건 당연한 겁니다, 자본주의에서.

00:12:57.764 --> 00:13:00.925
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
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

00:13:01.025 --> 00:13:03.579
이걸 한도 끝도 없이
만들어 줄 수가 없죠.

00:13:03.679 --> 00:13:08.459
정부 입장에서든 예산은
희소하니까요.

00:13:08.559 --> 00:13:09.665
이해가 되죠, 무슨 말인지?

00:13:09.765 --> 00:13:12.585
그래서 공공재 부족
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

00:13:12.685 --> 00:13:15.408
바로 이 비경합성, 비배제성.

00:13:15.508 --> 00:13:17.487
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짜.

00:13:17.587 --> 00:13:21.579
이 무임승차 효과가
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

00:13:21.679 --> 00:13:26.605
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
만큼 공공재든 공공서비스든

00:13:26.705 --> 00:13:31.297
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
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

00:13:31.397 --> 00:13:32.798
이해가 되겠죠?

00:13:32.898 --> 00:13:35.096
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

00:13:35.196 --> 00:13:37.843
이게 퀴즈하고 첫 번째
테마를 마무리시켜드릴게요.

00:13:37.943 --> 00:13:39.323
잡니다.

00:13:39.423 --> 00:13:42.739
체크 표시하는 겁니다, 첫 번째.

00:13:42.839 --> 00:13:47.148
OO이란 생산을 가능케
하는 기계, 설비 등과

00:13:47.248 --> 00:13:50.921
이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
의미하는 것이다.

00:13:51.021 --> 00:13:53.022
이건 초등학생도 알겠단, 그렇죠?

00:13:53.122 --> 00:13:55.196
뭐예요?
그럼요, 돈이죠, 뭐.

00:13:55.296 --> 00:13:57.283
자본입니다.

00:13:57.383 --> 00:14:00.711
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,
특히나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

00:14:00.811 --> 00:14:04.620
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은
단연 으뜸 돈입니다.

00:14:04.720 --> 00:14:07.345
이 자본이 생산수단이죠.

00:14:07.445 --> 00:14:13.508
다음 두 번째, 신항로 개척 이후,
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?

00:14:13.608 --> 00:14:19.579
절대 왕정의 강력한 서포트로
이 중상주의 정책이 진행됩니다.

00:14:20.108 --> 00:14:25.650
그래서 이 중상주의 정책 때의
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

00:14:25.750 --> 00:14:32.633
상업 자본주의였어요.
산업 아니에요, 상업 자본주의입니다.

00:14:32.733 --> 00:14:33.433
맞죠?

00:14:33.533 --> 00:14:37.685

그러니까 신항로 개척 이후에
절대 왕정의 지지를 얻은

00:14:37.785 --> 00:14:44.209

이 중상주의 정책으로 자본주의는 뒤를
중심으로 전개되겠습니까, 상업이니까.

00:14:44.309 --> 00:14:47.942

그럼요, 물건을 만드는 게
아니고 유통하는 거예요.

00:14:48.042 --> 00:14:49.940

제가 예를 들어 들었잖아요.

00:14:50.040 --> 00:14:51.445

동방무역이라고.

00:14:51.545 --> 00:14:55.876

중국에 가서 값싸게 사 와서
이걸 비싸게 파는 겁니다,

00:14:55.976 --> 00:14:57.477

당시 영국 귀족들에게.

00:14:57.577 --> 00:14:59.022

이건 유통 중심이죠.

00:14:59.122 --> 00:15:06.530

생산한다는 것은 뭔가 원료를 사 와서
이걸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거예요.

00:15:06.630 --> 00:15:10.877

그런데 이 중상주의적인
동방무역은 그냥 유통입니다.

00:15:10.977 --> 00:15:14.838

싸게 사 와서 비싸게 팔고
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.

00:15:14.938 --> 00:15:17.359

그래서 유통중심.

00:15:17.459 --> 00:15:22.004

동방무역 중심의 자본주의가
상업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.

00:15:22.104 --> 00:15:23.280

이해되죠?

00:15:23.380 --> 00:15:28.571

다음 세 번째, 경제 대공황
이후 시장 한계 보완하고

00:15:28.671 --> 00:15:31.554

모든 국민의 인간다운
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

00:15:31.654 --> 00:15:33.881

무슨 정부가 강조되겠습니까?

00:15:33.981 --> 00:15:36.820
큰 정부가 강조될 수밖에 없죠.

00:15:36.920 --> 00:15:38.536
무슨 자본주의다?

00:15:38.636 --> 00:15:41.634
수정 자본주의다.

00:15:41.734 --> 00:15:44.077
경제학자 성함 뭐였나요?

00:15:44.177 --> 00:15:46.925
존 메이너드 케인스.

00:15:47.025 --> 00:15:49.317
수정 자본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.

00:15:49.417 --> 00:15:54.896
다음 네 번째, 이것이란
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,

00:15:54.996 --> 00:15:58.221
만족감, 효용 가치.
뭐예요?

00:15:58.321 --> 00:16:00.704
편익이죠, 만족감이니까요.

00:16:00.804 --> 00:16:04.654
다음, 이것이란 선택을
위해서 포기한 가치.

00:16:04.754 --> 00:16:06.297
그러면 당연히 비용일 거 아닙니까?

00:16:06.397 --> 00:16:11.538
비용을 지불해야 경제학에서 편익을
얻을 수 있으니까요, 맞죠?

00:16:11.638 --> 00:16:13.292
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요.

00:16:13.392 --> 00:16:18.842
이것은 구성원들에게 생산된 재화의
분배를 균형 있게 할 것이다.

00:16:18.942 --> 00:16:20.879
이건 거의 어휘 문제죠.

00:16:20.979 --> 00:16:24.229
이른바 고른 분배,
균형 있는 분배.

00:16:24.329 --> 00:16:25.489
이건 뭐겠습니까?

00:16:25.589 --> 00:16:28.490
효율성이라기보다는 고른 분배.

00:16:28.590 --> 00:16:34.087
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형평성을
추구하는 고른 분배를 말하는 것이예요.

00:16:34.187 --> 00:16:36.004
아시겠죠?
좋습니다.

00:16:36.104 --> 00:16:37.871
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.

00:16:37.971 --> 00:16:39.990
다음요.

00:16:40.577 --> 00:16:47.675
두 번째는 각 자본주의 단계에서
나타나는 특징들을 연결해보는 겁니다.

00:16:47.775 --> 00:16:49.954
이것도 쉽죠, 갑니다.

00:16:50.054 --> 00:16:51.540
첫 번째요.

00:16:51.640 --> 00:16:55.070
공장에서 대량 생산
체제가 이루어지려면

00:16:55.170 --> 00:16:58.831
다시 한번 복습을 짧게 시켜드리면

00:16:58.931 --> 00:17:01.243
산업 혁명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.

00:17:01.343 --> 00:17:06.663
그래야지만 공장제 기계 공업을 통해서
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잖아, 그렇지?

00:17:06.763 --> 00:17:10.185
그러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
자본주의는 당연히 글자 그대로

00:17:10.704 --> 00:17:13.674
산업자본주의가 되겠죠.

00:17:13.774 --> 00:17:14.816
이해되죠?

00:17:14.916 --> 00:17:16.759
다음 ㄴ, 중상주의 경제.

00:17:16.859 --> 00:17:18.046
방금 배웠죠?

00:17:18.146 --> 00:17:22.949
동방무역 유통 경제 중심이었던
상업 자본주의고요.

00:17:23.049 --> 00:17:27.460
다음 ㄷ, 국가의
시장 개입을 비판한다.

00:17:27.560 --> 00:17:32.775
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 어떤 적극적
개입과 간섭을 거부하는 거잖아.

00:17:32.875 --> 00:17:33.789
이게 뭐예요?

00:17:33.889 --> 00:17:37.970
이게 프리드먼의
신자유주의였었죠, 맞죠?

00:17:38.070 --> 00:17:41.805
애덤 스미스 시대로 회귀하자,
이렇게 저희가 정리했습니다.

00:17:41.925 --> 00:17:47.003
다음 네 번째, 이걸 거꾸로 시장에
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

00:17:47.103 --> 00:17:49.211
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니까

00:17:49.311 --> 00:17:53.552
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로
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17:53.652 --> 00:17:55.537
됐나요?
좋고요.

00:17:56.032 --> 00:18:02.205
다음 세 번째는 개념어를
한번 써봐라, 라는 겁니다.

00:18:02.305 --> 00:18:07.825
다 서술형 때문에 이런 것들을
한번 해보는 겁니다, 출발.

00:18:07.925 --> 00:18:11.650
1,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
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

00:18:11.750 --> 00:18:13.571
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냐.

00:18:13.671 --> 00:18:15.025
이게 무슨 성이에요?

00:18:15.125 --> 00:18:19.856
그럼요,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
가장 근본적인 이유죠.

00:18:19.956 --> 00:18:22.564
바로 희소성입니다.

00:18:22.664 --> 00:18:25.663
희귀 아니에요, 희소입니다.

00:18:25.763 --> 00:18:29.545
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.

00:18:29.645 --> 00:18:34.737
당연히 자원이 희소하니까 선택과
포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.

00:18:34.837 --> 00:18:37.252
한정되어있단 말이에요, 그렇지요?

00:18:37.352 --> 00:18:39.363
다음 두 번째요.

00:18:39.463 --> 00:18:44.613
봉건 사회 해체된 다음에 근대
자본주의가 성립되던 시기 형성된

00:18:44.713 --> 00:18:49.851
유럽 국가들의 상업
중심의 경제 정책이다.

00:18:49.951 --> 00:18:54.375
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보호무역을
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.

00:18:54.475 --> 00:18:59.930
상업 중심이고 당시 국가가 강하게
이것저것 규제한 거 아닙니까?

00:19:00.030 --> 00:19:06.461
이건 당연히 중상주의 경제
정책이라고 정리하셔야죠, 맞죠?

00:19:06.561 --> 00:19:09.316
절대 왕정이 뒤에서 서포트해주었다.

00:19:09.416 --> 00:19:12.560
여기까지 하시면 다 아시는
거예요, 오케이?

00:19:12.660 --> 00:19:15.978
좋고 다음 네 번째
O, X 해볼게요.

00:19:19.874 --> 00:19:21.469
봅시다.

00:19:21.569 --> 00:19:25.332
1,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
시장 경제를 바탕으로

00:19:25.432 --> 00:19:29.286
경제활동이 당연히
이루어지죠, 그렇잖아요.

00:19:29.386 --> 00:19:32.881
사회주의, 공산주의,
계획경제는 다들 아시겠지만

00:19:32.981 --> 00:19:35.227
거의 다 사라졌습니다.

00:19:35.327 --> 00:19:39.951

다음 두 번째, 자본주의는 개인의
이기심에 의한 사익 추구가

00:19:40.051 --> 00:19:44.617
사회 전체의 부를 웬 침해?

00:19:44.717 --> 00:19:45.767
말이 안 되죠.

00:19:45.867 --> 00:19:49.943
특히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
않는 손, 그 개념이 뭘니까?

00:19:50.043 --> 00:19:56.013
각 개인은 이기심에 의해서 각각
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

00:19:56.113 --> 00:20:00.125
자동으로 사회 전체의 부도
어떻게 되는 겁니까?

00:20:00.225 --> 00:20:02.324
증진되는 것이다, 맞죠?

00:20:02.424 --> 00:20:05.493
이게 보이지 않는
손의 효과였어요.

00:20:05.593 --> 00:20:10.308
경제 문제에 국가가 무슨 공익을
위해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

00:20:10.408 --> 00:20:15.166
그냥 각 개인이 또는 각
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

00:20:15.266 --> 00:20:17.228
이런저런 합리적인 활동을 하면

00:20:17.328 --> 00:20:21.224
그게 결국 국가 전체의 부
증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.

00:20:21.324 --> 00:20:24.375
이게 그 유명한 국부론에
나오는 이야기거든요.

00:20:24.475 --> 00:20:29.036
책 제목은 몰라도 되고 보이지 않는
손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.

00:20:29.136 --> 00:20:30.309
아시겠죠?

00:20:30.409 --> 00:20:33.327
침해하는 게 아니고
증대시키는 겁니다.

00:20:33.427 --> 00:20:34.523
오케이?

00:20:34.623 --> 00:20:38.872

다음 세 번째,
대공황을 계기로 해서

00:20:38.972 --> 00:20:44.202

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이 필요해,
라는 건 신자유주의가 아니었잖아.

00:20:44.302 --> 00:20:48.180

아까도 봤지만, 케인스의
수정 자본주의입니다.

00:20:48.280 --> 00:20:49.165

오케이?

00:20:49.265 --> 00:20:52.889

다음 네 번째,
경제학에서 효율성이란

00:20:52.989 --> 00:20:56.836

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
추구하는 원칙이죠, 당연한 거죠.

00:20:56.936 --> 00:21:00.560

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고
이게 자본주의 제1원칙.

00:21:00.660 --> 00:21:02.693

바로 효율성의 원칙입니다.

00:21:02.793 --> 00:21:08.650

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과 최대의
편익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.

00:21:08.750 --> 00:21:09.899

됐죠?

00:21:09.999 --> 00:21:10.900

좋습니다.

00:21:11.000 --> 00:21:13.774

테마 1,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.

00:21:13.874 --> 00:21:18.927

이제 이어서 저희 교안
3번 주제 볼 겁니다.

00:21:19.027 --> 00:21:22.271

시장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.

00:21:22.371 --> 00:21:23.885

이런 테마인데요.

00:21:23.985 --> 00:21:29.912

여기도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고
조금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.

00:21:30.012 --> 00:21:34.143

생산 요소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이
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

00:21:34.243 --> 00:21:36.743

그래서 제 설명을 잘
따라오시면 되고

00:21:36.843 --> 00:21:39.213

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
내용들이 중복되어서

00:21:39.313 --> 00:21:43.452

중복되는 내용은 확인만 하고
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

00:21:43.552 --> 00:21:44.945

갑시다.

00:21:45.045 --> 00:21:51.125

첫 번째는 경제 주체가 누가
있을까, 이것 정리하는 건데

00:21:51.225 --> 00:21:55.329

경제 주체라는 건 말 그대로
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

00:21:55.429 --> 00:21:58.844

경제활동을 하는 주인공들을
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21:58.944 --> 00:22:01.989

총 3주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.

00:22:02.089 --> 00:22:08.020

첫 번째는 뭐냐,
가계라는 게 있습니다, 가계.

00:22:08.120 --> 00:22:10.531

구멍가게 할 때
그 게 아니죠, 그렇지요?

00:22:10.631 --> 00:22:14.714

이 경제 주체에서 가계라는 건
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2:14.814 --> 00:22:16.910

또는 어떤 가정, 집을
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22:17.010 --> 00:22:19.901

그래서 어머님들 쓰는 가계부할 때
가계가 이거예요.

00:22:20.001 --> 00:22:21.148

아시겠지요?

00:22:21.248 --> 00:22:27.523

다음 두 번째 경제 활동의 주인공은
두말하면 잔소리, 기업이에요.

00:22:27.623 --> 00:22:30.863

다음 세 번째 주체가 바로 정부죠.

00:22:30.963 --> 00:22:33.254

그래서 가계, 기업, 정부.

00:22:33.354 --> 00:22:39.384
여기가 생산 경제활동에
3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

00:22:39.484 --> 00:22:40.319
오케이?

00:22:40.419 --> 00:22:43.760
그중 첫 번째 정부의
역할을 한번 볼 텐데

00:22:43.860 --> 00:22:48.343
정부라는 경제 주체는 주로 어떤
역할을 하느냐, 첫 번째요.

00:22:48.443 --> 00:22:53.185
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어떤
법적 규제를 하는 거죠.

00:22:53.285 --> 00:22:58.066
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건전하고
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

00:22:58.166 --> 00:23:02.402
당연히 감시하고 규제하는 그런
국가 권력 기관이 필요하겠죠.

00:23:02.502 --> 00:23:03.588
거기가 정부입니다.

00:23:03.688 --> 00:23:06.545
그래서 공정한 경쟁
질서를 지키기 위해서

00:23:06.645 --> 00:23:09.183
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하죠.

00:23:09.283 --> 00:23:13.772
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,
독과점 규제입니다.

00:23:13.872 --> 00:23:16.819
우리가 처번 시간에
배웠듯이 시장 실패 중에서

00:23:16.919 --> 00:23:21.280
첫 번째 실패 현상이 바로 이
독점과 과점 시장의 출현이잖아.

00:23:21.380 --> 00:23:22.213
맞죠?

00:23:22.313 --> 00:23:27.454
그런 독점 자본주의를 막기
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.

00:23:27.554 --> 00:23:28.108
오케이?

00:23:28.208 --> 00:23:30.486

그래서 독과점 기업의
횡포를 규제하고요.

00:23:30.586 --> 00:23:34.101

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연히
법적으로 규제를 해야죠.

00:23:34.201 --> 00:23:37.495

그걸 위해서 만든 게 독점
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

00:23:37.595 --> 00:23:40.585

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한 겁니다.

00:23:40.685 --> 00:23:43.758

이런 걸 경제법이라고 해요.

00:23:43.858 --> 00:23:49.271

관련 기관은 뭐냐, 소비자 주권을
위해서 만든 한국소비자원.

00:23:49.371 --> 00:23:52.512

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해서
만든 글자 그대로 공거위.

00:23:52.612 --> 00:23:57.730

공정 거래 위원회, 이런 것들이
국가 권력 기관들이죠.

00:23:57.830 --> 00:23:59.107

오케이?

00:23:59.207 --> 00:24:03.908

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
국가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.

00:24:04.008 --> 00:24:05.449

다음 두 번째요.

00:24:05.549 --> 00:24:08.442

공공재 생산, 당연하죠.

00:24:08.542 --> 00:24:10.835

두 번째 시장 실패가 뭐였습니까?

00:24:10.935 --> 00:24:12.837

공공재 부족 현상이었죠?

00:24:12.937 --> 00:24:16.826

그런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
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하죠.

00:24:16.926 --> 00:24:17.889

그런데 기업은요?

00:24:17.989 --> 00:24:19.541

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죠.

00:24:19.641 --> 00:24:20.753

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?

00:24:20.853 --> 00:24:22.482
그럼요, 국가가 해야죠.

00:24:22.582 --> 00:24:23.596
맞잖아요?

00:24:23.696 --> 00:24:26.455
그래서 국방 치안 서비스는 기본이고

00:24:26.555 --> 00:24:29.939
물론 아까도 배웠지만,
이 무임승차 효과 때문에

00:24:30.039 --> 00:24:32.435
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

00:24:32.535 --> 00:24:36.797
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공급을
해야 되는 겁니다.

00:24:36.897 --> 00:24:39.092
나설 때는 나서야죠, 국가가.
그렇죠?

00:24:39.192 --> 00:24:42.992
그래서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
위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

00:24:43.092 --> 00:24:49.143
직접 정부가 예산으로 만들고
집행하는 것입니다, 오케이?

00:24:49.243 --> 00:24:52.635
다음 세 번째, 외부 효과 개선.

00:24:52.735 --> 00:24:53.852
방금 봤죠?

00:24:53.952 --> 00:24:57.742
첫 번째, 긍정적 효과를
외부 경제라고 했습니다.

00:24:57.842 --> 00:25:04.240
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양봉업자와
과수원 사장님의 의도치 않은 윈윈.

00:25:04.689 --> 00:25:06.951
이건 긍정적인 효과잖아요.

00:25:07.051 --> 00:25:11.023
이런 것들은 계속 독려하고
격려하고 유인해야죠.

00:25:11.123 --> 00:25:11.687
맞죠?

00:25:11.787 --> 00:25:14.735
그러니까 보조금도 주고
세금도 혜택을 주고

00:25:14.835 --> 00:25:17.446

계속 긍정적인 유인을
제공하는 겁니다.

00:25:17.546 --> 00:25:20.761

그래야지 윈윈 효과가 지속되겠죠.

00:25:20.861 --> 00:25:28.163

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키우고 반면에
부정적 효과가 외부 불경제였습니다.

00:25:28.590 --> 00:25:32.325

환경오염 같은 것들이
대표적인 사례였었는데

00:25:32.425 --> 00:25:35.891

오염 물질 배출량을 당연히
법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

00:25:35.991 --> 00:25:41.122

오염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게는
좀 더 무거운 세금을 더 때리고

00:25:41.222 --> 00:25:45.438

이런 식으로 부정적인
채찍질을 가해야죠.

00:25:45.538 --> 00:25:47.016

이해가 되겠습니까?

00:25:47.116 --> 00:25:50.571

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부
다 정부의 역할입니다.

00:25:50.671 --> 00:25:53.837

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
필요한 영역에서는

00:25:53.937 --> 00:25:58.672

마땅히 국가가 칼을 대야
되는 거예요, 아시겠죠?

00:25:58.772 --> 00:26:00.896

그리고 네 번째는 빈부격차 해결.

00:26:00.996 --> 00:26:04.035

이건 저희가 사회문화
파트에서 많이 배운 거죠.

00:26:04.135 --> 00:26:06.804

사회권이라든가 복지국가.

00:26:06.904 --> 00:26:12.645

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
국가는 여러 역할을 해야죠.

00:26:12.745 --> 00:26:15.668

그래서 앞서 배웠지만, 누진세라든가

00:26:15.768 --> 00:26:19.376

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같은

각종 사회 보장 제도.

00:26:19.476 --> 00:26:24.029
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해야
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.

00:26:24.129 --> 00:26:26.524
됐죠?
정부의 역할 봤고요.

00:26:26.624 --> 00:26:30.176
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, 이게
기업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

00:26:30.276 --> 00:26:33.092
이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
보여드리고 별로 안 어려워.

00:26:33.192 --> 00:26:35.278
그리고 너희 이거 중학교 때
한 번 배운 거예요.

00:26:35.378 --> 00:26:37.818
물론 다 까먹었겠지만.

00:26:37.918 --> 00:26:40.959
두 번째는 기업은
어떤 일을 하느냐,

00:26:41.059 --> 00:26:45.080
첫 번째, 재화와 서비스를
시장에 공급합니다.

00:26:45.180 --> 00:26:47.133
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.

00:26:47.233 --> 00:26:51.391
기업은 주로 생산의 주체라고 해요.

00:26:51.491 --> 00:26:52.601
재화가 뭐예요?

00:26:52.701 --> 00:26:54.424
상품입니다.

00:26:54.524 --> 00:26:58.155
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체가
있는 물건 같은 게 재화죠.

00:26:58.255 --> 00:26:59.965
그러면 서비스는 뭐예요?

00:27:00.065 --> 00:27:05.303
형체는 없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
지니고 있는 어떤 용역.

00:27:05.937 --> 00:27:10.039
무형의 어떤 행위, 이런
것들을 서비스라고 합니다.

00:27:10.139 --> 00:27:13.582

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

00:27:13.682 --> 00:27:18.846
이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
하는 것이 당연히 기업이죠.

00:27:18.946 --> 00:27:22.288
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
공급해서 소비자들.

00:27:22.388 --> 00:27:27.854
그러니까 우리 가게들의 수요를
충족시켜주는 것이 기업의 역할입니다.

00:27:27.954 --> 00:27:29.410
맞죠?

00:27:29.510 --> 00:27:31.994
그리고 기업은 당연히
왜 만들었겠습니까?

00:27:32.094 --> 00:27:37.596
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돈
많이 벌려고 당연히 생산하겠죠.

00:27:37.696 --> 00:27:42.316
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.

00:27:42.416 --> 00:27:43.299
보세요.

00:27:43.399 --> 00:27:47.692
이게 이제 시장 어떤 경제
질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.

00:27:47.792 --> 00:27:50.649
이른바 수요, 공급 곡선,
이렇게 하는 것인데

00:27:50.749 --> 00:27:53.547
이걸 제가 조금 설명해드릴게요.

00:27:53.647 --> 00:27:56.867
일단 X축은 수량이죠.

00:27:56.967 --> 00:28:00.257
아마 학교에서 이걸 쌤들이
Q, 이렇게 할 거예요.

00:28:00.848 --> 00:28:03.341
이게 quantity라는 것입니다.

00:28:04.034 --> 00:28:06.495
quality, 이걸 질이죠?

00:28:06.595 --> 00:28:08.993
그러면 quantity는요?
양인 거예요.

00:28:09.093 --> 00:28:14.536
그러니까 X축이니깐 오른쪽으로

갈수록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.

00:28:14.636 --> 00:28:15.437
오케이?

00:28:15.537 --> 00:28:19.950
다음 Y축은 또 학교 샘들이
P라고 쓸 거예요.

00:28:20.050 --> 00:28:21.315
뭘까요?

00:28:21.415 --> 00:28:24.209
price, 가격을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28:24.309 --> 00:28:28.562
Y축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
비싸, 라는 거죠.

00:28:28.662 --> 00:28:29.925
오케이?

00:28:30.025 --> 00:28:31.600
다음요.

00:28:31.700 --> 00:28:35.846
이 수량과 가격의 관계가
반비례 관계인 것.

00:28:35.946 --> 00:28:38.687
즉 역관계인 게 지금
이거죠, 이 색깔.

00:28:39.179 --> 00:28:43.537
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학교 샘들은
아마 D, 이렇게 쓸 거예요.

00:28:44.273 --> 00:28:45.250
뭘까요?

00:28:45.350 --> 00:28:48.638
demand, 수요라는 뜻입니다.

00:28:48.738 --> 00:28:52.591
반면에 수량과 가격의
관계가 비례관계.

00:28:52.691 --> 00:28:57.596
이걸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또
학교 샘들은 S라고 할 거예요.

00:28:57.696 --> 00:28:58.434
뭘예요?

00:28:58.534 --> 00:29:00.759
supply, 공급이라는 뜻입니다.

00:29:00.859 --> 00:29:03.529
이게 수요, 공급 곡선
이야기하는 것이고요.

00:29:03.629 --> 00:29:06.458
그러면 잘 보세요, 봐 봐.

00:29:06.558 --> 00:29:12.087
단약에 가격이 비싸지면,
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

00:29:12.187 --> 00:29:14.666
재화 또는 서비스의
가격이 올라가면,

00:29:14.766 --> 00:29:18.728
즉 비싸지면 우리 많이
살 수 있어, 못 사?

00:29:18.828 --> 00:29:19.924
못 사죠.

00:29:20.024 --> 00:29:21.404
당연한 거죠, 물가가 상승하면

00:29:21.504 --> 00:29:26.983
당연히 우리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
여유가 줄어듭니다, 비싸니까요.

00:29:27.083 --> 00:29:31.461
그래서 가격이 비싸질수록
이 수요량은 어때요?

00:29:31.561 --> 00:29:33.195
줄어드는 거예요.

00:29:33.295 --> 00:29:34.692
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.

00:29:34.792 --> 00:29:37.834
비싸니까 수요량은 줄죠.

00:29:37.934 --> 00:29:39.903
그래서 반비례인 거예요.

00:29:40.003 --> 00:29:40.641
오케이?

00:29:40.741 --> 00:29:46.781
가격과 수량의 관계가 역관계인
것이 수요 곡선인 이 D선입니다.

00:29:46.881 --> 00:29:47.739
이해되죠?

00:29:47.839 --> 00:29:52.898
반면에 공급 곡선은
지금 비례 관계죠.

00:29:52.998 --> 00:29:55.055
이건 공급 업자에서
생각하는 거예요.

00:29:55.155 --> 00:29:58.897

이건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,
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면

00:29:58.997 --> 00:30:03.586
이거는 생산자, 공급업자인 기업
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.

00:30:03.686 --> 00:30:08.020
만약에 너희가 어떤 회사 사장님이면

00:30:08.120 --> 00:30:11.685
제품의 가격이 시장에서
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

00:30:11.785 --> 00:30:13.418
그러면 공급 업자 입장에서는

00:30:13.518 --> 00:30:16.188
이걸 더 만들고 싶겠어요,
덜 만들고 싶겠어요?

00:30:16.288 --> 00:30:17.480
당연히 더 만들어야죠.

00:30:17.580 --> 00:30:21.163
왜?
팔리면 그만큼 이윤이 더 남잖아.

00:30:21.263 --> 00:30:28.340
그래서 이 재화와 서비스는 가격이
떨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.

00:30:28.440 --> 00:30:29.498
이해됩니까?

00:30:29.598 --> 00:30:34.124
그러면 이걸 제가
이해시켜드릴게요, 봐.

00:30:34.224 --> 00:30:41.949
만약에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
가격이 여기 찍히면

00:30:43.007 --> 00:30:45.475
이건 싼 거야, 비싼 거야?

00:30:45.575 --> 00:30:49.327
Y축으로 읽는 거니까 이 정도
찍히면 이걸 꽤 높게 찍힌 거죠?

00:30:49.427 --> 00:30:51.590
그러면 이걸 비싼 거예요, 맞죠?

00:30:51.690 --> 00:30:53.032
그러면 봐 봐요.

00:30:53.132 --> 00:31:02.340
가격이 저기 찍히면 비싸니까
가격이 지금 이만큼이잖아?

00:31:02.440 --> 00:31:03.378

비싼 거잖아.

00:31:03.478 --> 00:31:10.329
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찍히면
그 물건을 원하는 수요량은요?

00:31:10.429 --> 00:31:11.298
이만큼인 거예요.

00:31:11.398 --> 00:31:13.313
양은 X축으로 읽는 거니까.

00:31:13.413 --> 00:31:14.575
이해가 돼?

00:31:14.675 --> 00:31:19.539
그런데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
수요량은 보시는 것처럼 늘어납니다.

00:31:19.639 --> 00:31:21.826
왜요?
싸니까요.

00:31:21.926 --> 00:31:24.750
반면 공급 곡선 보세요.

00:31:24.850 --> 00:31:27.520
가격이 여기 찍히면 봐 봐요.

00:31:27.620 --> 00:31:28.768
공급량은요?

00:31:28.868 --> 00:31:30.253
이만큼인 거예요.

00:31:30.353 --> 00:31:32.992
왕창왕창 만들어지는 겁니다.

00:31:33.092 --> 00:31:34.225
이해되겠어요?

00:31:34.325 --> 00:31:37.324
그러면 잘 봐.

00:31:38.109 --> 00:31:41.392
가격이 여기 찍히면,
즉 이만큼 비싸면

00:31:41.492 --> 00:31:45.229
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은
이만큼 밖에 없는데

00:31:45.329 --> 00:31:50.207
시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는
양은 이만큼인 거죠.

00:31:51.124 --> 00:31:54.983
그러면 물건이 귀해, 흔해?

00:31:55.083 --> 00:31:58.515
당연히 흔하지, 물건이

남아도는 거야, 너무 많이 만들어서.

00:31:58.615 --> 00:32:03.781

그러면 물건이 남아돌면
누구끼리 경쟁할까?

00:32:03.881 --> 00:32:07.420

소비자끼리 싸울까,
공급업자끼리 싸울까?

00:32:07.520 --> 00:32:09.751

그럼요, 공급자끼리
싸울 수밖에 없어요.

00:32:09.851 --> 00:32:11.741

왜?
팔아야 되거든요.

00:32:11.841 --> 00:32:15.082

그러면 팔아야 되려면
가장 쉬운 방법이 뭐게?

00:32:15.182 --> 00:32:17.653

그럼요, 폭탄 세일인 거죠.

00:32:17.753 --> 00:32:18.892

이제 이해가 되죠?

00:32:18.992 --> 00:32:20.259

그러니까 보라고요.

00:32:20.359 --> 00:32:24.091

가격이 비싸게 찍혀도 별로
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

00:32:24.191 --> 00:32:25.388

왜?

00:32:25.488 --> 00:32:27.903

공급업자끼리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

00:32:28.003 --> 00:32:32.530

가격은 정말 놀랍게도
자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

00:32:32.630 --> 00:32:35.885

이게 보이지 않는
손의 기능인 거죠.

00:32:35.985 --> 00:32:38.850

이걸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거죠.

00:32:38.950 --> 00:32:41.733

맞는 말인 거죠, 이해되죠?

00:32:41.833 --> 00:32:49.462

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어떤 재화와
서비스의 가격이 여기 찍혔다고 해보죠.

00:32:49.562 --> 00:32:51.810

그러면 싼 거야, 비싼 거야?

00:32:51.910 --> 00:32:54.348
속된 말로 똥값이죠.

00:32:54.448 --> 00:32:55.436
싸잖아?

00:32:55.536 --> 00:32:57.990
Y축이 가격이니깐 여기 찍히면

00:32:58.090 --> 00:33:01.273
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
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.

00:33:01.373 --> 00:33:02.869
매우 많이 싼 겁니다.

00:33:02.969 --> 00:33:04.666
그러면 또 읽어볼까요?

00:33:04.766 --> 00:33:10.693
가격이 이렇게 되면 이 수요량은
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죠.

00:33:10.793 --> 00:33:15.745
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끼리 그 물건을
원하는 수요자가 우와, 떨이다!

00:33:15.845 --> 00:33:17.876
막 뛰어오는 겁니다,
어떻게든 사려고.

00:33:17.976 --> 00:33:19.682
왜?
싸니까.

00:33:19.782 --> 00:33:20.538
이해돼?

00:33:20.638 --> 00:33:26.040
그런데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싸니까
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겠어요,

00:33:26.140 --> 00:33:28.442
그냥 이만큼만 만들겠어요?

00:33:28.542 --> 00:33:30.628
이만큼만 시장에 공급되는 겁니다.

00:33:30.728 --> 00:33:32.604
이게 공급 곡선이니까.

00:33:32.704 --> 00:33:33.733
이해가 돼?

00:33:33.833 --> 00:33:36.864
그러니 봐 봐, 정반대지?

00:33:36.964 --> 00:33:40.274
가격이 싸지면 이제
누구끼리 싸웁니까?

00:33:40.374 --> 00:33:42.624
수요자인 소비자끼리 싸우는 겁니다.

00:33:42.724 --> 00:33:46.193
어떻게든 그싼 거 사려고
난리가 나는 거예요.

00:33:46.293 --> 00:33:47.232
이해가 되겠습니까?

00:33:47.332 --> 00:33:50.511
그러니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

00:33:50.611 --> 00:33:54.905
이렇게싼 제품의 가격은
자동으로 어떻게 되겠어요?

00:33:55.005 --> 00:33:56.531
올라가는 거예요.

00:33:56.631 --> 00:33:57.410
이해가 돼요?

00:33:57.510 --> 00:34:01.747
그러니 공급자와 수요자가 안 싸우는

00:34:01.847 --> 00:34:07.259
아주 합리적으로 탁 거기서 가격이
결정되는 구간은 어디겠습니까?

00:34:07.359 --> 00:34:08.546
여기죠.

00:34:08.646 --> 00:34:11.043
물건을 원하는 사람도 이만큼.

00:34:11.143 --> 00:34:14.724
그리고 물건이 시장에서
공급되는 양도 이만큼.

00:34:14.824 --> 00:34:18.133
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이
10개가 있는데

00:34:18.233 --> 00:34:21.183
그 물건 10개를 원하는
사람도 10명인 거예요.

00:34:21.283 --> 00:34:24.257
그러면 이걸 수요량과
공급량이 일치하는 거죠.

00:34:24.357 --> 00:34:28.207
그래서 이 양을 균형
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.

00:34:28.307 --> 00:34:31.316
그리고 이 균형 거래량에서 결정되는

00:34:31.416 --> 00:34:35.563

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
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

00:34:35.663 --> 00:34:43.869
마지막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가격이
결국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

00:34:43.969 --> 00:34:48.516
이른바 시장 가격으로
결정되게 되어있다.

00:34:48.616 --> 00:34:53.230
이게 시장 가격 결정의 원리를
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.

00:34:53.330 --> 00:34:54.286
이해가 되겠습니까?

00:34:54.386 --> 00:35:01.421
그래서 수요, 공급 곡선이 만나는
이 지점에서 균형거래량이 결정되고

00:35:01.521 --> 00:35:05.267
여기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이
곧 그 재화와 서비스가

00:35:05.367 --> 00:35:10.408
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
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.

00:35:10.508 --> 00:35:11.523
이해가 됐죠?

00:35:11.623 --> 00:35:15.571
아마 학교 가시면 또 이거 막
지지고 볶고 초과공급, 초과수요.

00:35:15.671 --> 00:35:18.024
그런 용어들을 학교
쌤들이 가르쳐줄 거야.

00:35:18.124 --> 00:35:22.082
그건 제가 시험 대비 특강할 때 조금씩
깊게 더 들어가 드리겠습니다.

00:35:22.182 --> 00:35:22.838
아시겠죠?

00:35:22.938 --> 00:35:27.182
일단 이 그래프의 원리만
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

00:35:28.030 --> 00:35:29.340
됐고요.

00:35:30.731 --> 00:35:32.971
다음 두 번째.

00:35:35.355 --> 00:35:39.038
이게 이 그림을 또 이해하셔야
돼요, 이 그림.

00:35:39.138 --> 00:35:40.460
봐 봐.

00:35:40.560 --> 00:35:44.422
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
생산 요소 시장입니다.

00:35:44.522 --> 00:35:45.736
생산 요소 시장.

00:35:45.836 --> 00:35:48.159
일단 한번 볼게요.

00:35:48.259 --> 00:35:50.744
노동, 토지, 자본.

00:35:50.844 --> 00:35:54.917
이걸 흔히 3대 생산
요소라고 해요.

00:35:55.017 --> 00:35:56.805
그러니까 어떤 재화라든가

00:35:56.905 --> 00:36:02.873
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
요소를 생산요소라고 하죠.

00:36:02.973 --> 00:36:04.453
예를 들어볼까?

00:36:04.553 --> 00:36:07.380
이거 분필이잖아.
이거 재화예요.

00:36:07.480 --> 00:36:09.933
강남구청에서 산 거 같은데

00:36:10.033 --> 00:36:12.696
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
3000원이라고 해보자.

00:36:12.796 --> 00:36:16.666
그러면 이걸 3000원짜리
상품인 재화잖아, 맞지?

00:36:16.766 --> 00:36:19.660
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?

00:36:20.241 --> 00:36:24.409
서종몰이라고 쓰여 있네요,
어떤 교구 업체겠죠?

00:36:25.182 --> 00:36:28.219
이거를 3000원에 파는 거예요.

00:36:28.319 --> 00:36:31.895
그러면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건
학원 강사분들일 겁니다.

00:36:31.995 --> 00:36:34.805

그러면 학원 강사분들이 수요자,

00:36:34.905 --> 00:36:38.098
서종몰이 공급자가 되는 거죠.

00:36:38.198 --> 00:36:39.648
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.

00:36:39.748 --> 00:36:42.767
이걸 생산하기 위해서
필요한 게 있습니다.

00:36:42.867 --> 00:36:46.066
이걸 만들기 위해서 꼭
필요한 요소가 있다고요.

00:36:46.166 --> 00:36:48.705
그걸 생산요소라고 하는 거예요.

00:36:48.805 --> 00:36:51.324
이거 만들려면 제일 먼저
필요한 게 뭘까요?

00:36:51.424 --> 00:36:52.771
그럼요, 사람이죠.

00:36:52.871 --> 00:36:55.494
노동자가 일을 해야 이게
만들어질 거 아니야.

00:36:55.594 --> 00:36:57.511
그게 노동인 거예요.

00:36:57.611 --> 00:37:01.409
두 번째, 물론 이런
공업 제품 같은 경우는

00:37:01.509 --> 00:37:03.965
토지가 중요한 생산요소는 아니겠지만

00:37:04.065 --> 00:37:07.448
물론 농업 사회에서 가장
중요한 생산요소는 땅이죠.

00:37:07.548 --> 00:37:10.377
땅이 있어야 씨 뿌리고
농산물을 재배할 거 아니냐.

00:37:10.477 --> 00:37:15.645
그런데 일정 토지 면적이 있어야 거기다
공장도 세우고 만들 거 아닙니까?

00:37:15.745 --> 00:37:20.363
그래서 토지 같은 것도 전통적인
생산 요소가 될 수 있어요, 맞죠?

00:37:20.463 --> 00:37:23.279
다음, 가장 중요한
생산요소는 뭐겠어요?

00:37:23.379 --> 00:37:24.419

그럼요, 돈이에요.

00:37:24.519 --> 00:37:25.427
자본입니다.

00:37:25.527 --> 00:37:28.360
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임금 줘야죠.

00:37:28.460 --> 00:37:30.710
공장 사려면 돈 필요하죠.

00:37:30.810 --> 00:37:35.002
공장 계속 돌리려고 해도, 기계를
돌리려고 해도 필요한 건 돈이에요.

00:37:35.102 --> 00:37:38.357
그래서 토지, 자본, 노동력.

00:37:38.457 --> 00:37:44.935
이걸 3대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이
생산 요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.

00:37:45.035 --> 00:37:47.435
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놈이에요.

00:37:47.535 --> 00:37:51.258
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,
생산 요소 시장의 흐름.

00:37:51.358 --> 00:37:53.499
알겠죠?

00:37:53.599 --> 00:37:55.821
바로 그림을 볼까요?

00:37:55.921 --> 00:37:57.439
봐 봐요.

00:37:57.539 --> 00:37:59.060
여기가 기업이죠?

00:37:59.160 --> 00:38:01.706
이 분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치자.

00:38:01.806 --> 00:38:04.984
다음에 가계죠?

00:38:05.084 --> 00:38:05.927
집이에요, 집.

00:38:06.027 --> 00:38:09.124
개인 또는 가정을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38:09.224 --> 00:38:11.417
봐 봐.

00:38:11.517 --> 00:38:15.269
일단 가계가 기업한테
주는 걸 봐 봐.

00:38:15.369 --> 00:38:18.322
상품 구매 대금이라고 해서 가죠?

00:38:18.422 --> 00:38:19.221
이게 뭔데요?

00:38:19.321 --> 00:38:23.884
이걸 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
상품 구매 대금이에요.

00:38:23.984 --> 00:38:27.315
그러면 상품 구매 대금을
지불한다는 것은

00:38:27.415 --> 00:38:31.003
거꾸로 기업은 당연히
가게한테 뭐예요?

00:38:31.103 --> 00:38:32.595
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것들.

00:38:32.751 --> 00:38:36.186
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
상품을 파는 거죠.

00:38:36.286 --> 00:38:41.628
그래서 기업은 가게한테 각종
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고

00:38:41.728 --> 00:38:46.826
이걸 만약에 가게가 사면 상품 구매
대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.

00:38:46.926 --> 00:38:49.972
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
거예요, 오케이?

00:38:50.072 --> 00:38:52.053
이제 이걸 생산물
시장이라고 합니다.

00:38:52.153 --> 00:38:55.135
그런 건 됐고 그냥, 왔다
갔다 하는 건 이해가 되겠죠?

00:38:55.235 --> 00:38:59.275
그러면 생산 요소가 어떻게
넘어가는지 보세요.

00:38:59.375 --> 00:39:00.488
잘 봐요.

00:39:00.588 --> 00:39:05.037
노동력과 땅과 자본을 누가 줍니까?

00:39:05.137 --> 00:39:06.714
가게가 주는 거예요.

00:39:06.814 --> 00:39:07.935
당연하죠.

00:39:08.035 --> 00:39:14.028
노동력은 여기에 있는 엄마, 아빠가
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겁니다.

00:39:14.128 --> 00:39:18.877
즉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건
가정이죠, 가게인 거예요.

00:39:18.977 --> 00:39:19.544
오케이?

00:39:19.644 --> 00:39:23.681
또 땅 부자인 어떤
최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

00:39:23.781 --> 00:39:28.234
개는 땅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
기업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

00:39:28.334 --> 00:39:32.093
토지 중 일부를 그냥
빌려줄 수도 있죠, 월세 받으면서.

00:39:32.193 --> 00:39:36.496
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것도
가게가 제공해주는 겁니다.

00:39:36.596 --> 00:39:39.354
다음, 자본도 가게가
제공해주는 거예요.

00:39:39.454 --> 00:39:42.542
이걸 잘 이해를 못
하는데 생각을 해봐.

00:39:42.642 --> 00:39:46.979
기업이 있잖아, 돈이
필요하면 주로 뭐하게?

00:39:47.079 --> 00:39:49.222
은행 가서 대출받습니다.

00:39:49.322 --> 00:39:52.435
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
은행에 돈이 있겠죠?

00:39:52.535 --> 00:39:54.850
그런데 야, 그 은행에
돈 누구 거야?

00:39:54.950 --> 00:39:55.997
우리 거야.

00:39:56.097 --> 00:40:00.616
저희가 저축해놓은 돈을 은행이
기업에 빌려주는 겁니다.

00:40:00.716 --> 00:40:02.760
이걸 대출이라고 하죠, 맞죠?

00:40:02.860 --> 00:40:04.245

그러면 뭐 받아요?

00:40:04.345 --> 00:40:05.528

그럼요, 이자 받습니다.

00:40:05.628 --> 00:40:08.369

그 이자 중 일부를
적금이든 예금이든

00:40:08.469 --> 00:40:12.335

돈을 맡겨놓은 우리한테 일부
주고 나머지 은행 먹고.

00:40:12.435 --> 00:40:14.441

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.

00:40:14.541 --> 00:40:19.471

그러니 생산 요소 시장에서
토지와 자본과 노동이라는

00:40:19.571 --> 00:40:23.754

생산 요소를 제공해주는
것이 바로 가계인 거예요.

00:40:24.190 --> 00:40:30.062

그러면 기업이 노동과 토지와
자본을 제공받잖아.

00:40:30.162 --> 00:40:32.519

그러면 제공 받으면
당연히 뭐해야 돼?

00:40:32.619 --> 00:40:36.590

그럼, 대가를 줘야죠,
자본주의인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.

00:40:36.690 --> 00:40:37.878

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.

00:40:37.978 --> 00:40:39.692

이걸 외우셔야 됩니다.

00:40:39.792 --> 00:40:41.223

갑니다.

00:40:41.323 --> 00:40:44.070

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
뭐라고 그러겠습니까?

00:40:44.170 --> 00:40:47.037

월급, 페이 등 여러 표현이 있지만

00:40:47.137 --> 00:40:49.602

경제학에서는 임금이라고 해요.

00:40:49.702 --> 00:40:52.926

노동에 대한 대가, 임금.

00:40:53.026 --> 00:40:56.529

토지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
쉽게 말하면 땅값,

00:40:56.629 --> 00:41:00.051

건물 임대료와 같은
지대라고 하고요.

00:41:00.151 --> 00:41:04.129

자본에 대한 대가는 방금
배우신 이자가 되는 거죠.

00:41:04.229 --> 00:41:09.593

그러니 임금과 지대와 이자는 당연히
기업이 가게한테 제공해주는 거죠.

00:41:09.693 --> 00:41:15.120

이런 식으로 생산 요소가 가게와 기업
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

00:41:15.220 --> 00:41:17.597

이게 국민 경제의 흐름이에요.

00:41:17.697 --> 00:41:20.229

이해되죠?

00:41:20.329 --> 00:41:21.771

다음 밑에요.

00:41:21.871 --> 00:41:25.035

정부도 당연히 여기 참여합니다.

00:41:25.135 --> 00:41:28.517

그러면 정부는 가게와
기업에게 뭘 주느냐,

00:41:28.617 --> 00:41:32.164

뭘 주긴 공공재와
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죠.

00:41:32.264 --> 00:41:37.787

그런데 국가가 각종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
만들어서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?

00:41:37.887 --> 00:41:39.259

돈이 있어야 됩니다.

00:41:39.359 --> 00:41:40.428

그래서 걷는 게 뭐예요?

00:41:40.528 --> 00:41:41.903

그럼요, 세금이죠.

00:41:42.003 --> 00:41:43.061

당연한 거죠.

00:41:43.161 --> 00:41:45.970

기업에게도 각종 법인세 걷고요.

00:41:46.070 --> 00:41:48.684

가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.

00:41:48.784 --> 00:41:54.046

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받아서

각종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

00:41:54.146 --> 00:41:58.606

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해주는 겁니다.

00:41:58.706 --> 00:41:59.831

이 그림이 이해가 되죠?

00:41:59.931 --> 00:42:01.269

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.

00:42:01.369 --> 00:42:02.408

어려운 건 아니에요.

00:42:02.508 --> 00:42:05.955

특히나 이 용어들을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.

00:42:06.055 --> 00:42:06.913

됐죠?

00:42:07.013 --> 00:42:11.079

생산물과 생산요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

00:42:11.179 --> 00:42:13.073

이게 바로 국민 경제,

00:42:13.173 --> 00:42:16.951

어떤 내수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.

00:42:17.051 --> 00:42:17.893

됐죠?

00:42:17.993 --> 00:42:19.673

좋아요.

00:42:19.773 --> 00:42:25.128

다음에 기업은 이제 또 어떤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느냐

00:42:25.228 --> 00:42:29.293

이건 윤리 같은 내용인데 확인만 해볼게.

00:42:29.393 --> 00:42:33.233

진정한 기업이라면 스펀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.

00:42:33.333 --> 00:42:36.196

그 스펀터가 강조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.

00:42:36.296 --> 00:42:38.905

이게 이른바 프론티어 정신이에요.

00:42:39.041 --> 00:42:42.414

어떤 개척자 정신,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봐 봐.

00:42:42.514 --> 00:42:46.371

진정한 기업가라면 미래의
위험과 불확실성.

00:42:46.471 --> 00:42:51.279

이런 거에 겁먹지 말고 혁신,
창의성, 무대포 정신.

00:42:51.379 --> 00:42:55.243

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
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.

00:42:55.343 --> 00:43:00.021

개척자 정신이 기업가한테는
무엇보다도 필요하다.

00:43:00.121 --> 00:43:01.218

이해되겠죠?

00:43:01.318 --> 00:43:04.980

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이 발
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

00:43:05.080 --> 00:43:07.469

그 기업은 망할 거예요.

00:43:08.119 --> 00:43:10.004

현실에서도 많이 보고 있죠?

00:43:10.104 --> 00:43:11.671

삼성 잘 나가죠?

00:43:11.771 --> 00:43:13.592

초특급 글로벌 기업이에요.

00:43:13.692 --> 00:43:17.282

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갤럭시라는
스마트폰에 안주한다면

00:43:17.382 --> 00:43:19.369

삼성은 수년 내에 망합니다.

00:43:19.469 --> 00:43:20.498

이게 기업인 거예요.

00:43:20.598 --> 00:43:26.623

그래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, 삼성에서도
핸드폰 같은 어떤 스마트폰.

00:43:26.723 --> 00:43:29.429

이런 IT 단말기 업종은

00:43:29.529 --> 00:43:33.451

사양산업이라는 걸
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.

00:43:33.551 --> 00:43:35.383

그래서 기사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

00:43:35.483 --> 00:43:39.368

예를 들어서 삼성이 1년에
1조를 벌잖아요?

00:43:39.468 --> 00:43:43.359

그러면 1조 중에서
8000억을 뭐하냐면 지금

00:43:43.459 --> 00:43:48.049

바이오테크놀로지, 생명공학기술에
다 쏟아붓고 있습니다.

00:43:48.149 --> 00:43:53.977

그러니까 삼성이 앞으로 계속
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BT.

00:43:54.077 --> 00:43:56.744

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생명공학기술에

00:43:56.844 --> 00:43:58.978

투자하지 않고서는
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.

00:43:59.078 --> 00:44:00.532

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

00:44:00.632 --> 00:44:01.455

이해돼요?

00:44:01.555 --> 00:44:03.566

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LG.

00:44:03.666 --> 00:44:05.300

전자로 역시나 유명하죠?

00:44:05.400 --> 00:44:08.805

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,
TV 같은 모니터.

00:44:08.905 --> 00:44:10.869

이게 전 세계적입니다, LG도.

00:44:10.969 --> 00:44:14.761

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
LG가 여기에 안주한다면

00:44:14.861 --> 00:44:19.069

이런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
수년 내에 망해요.

00:44:19.169 --> 00:44:23.233

그래서 지금 모든 대기업이
거의 다 뛰어들고 있지만

00:44:23.333 --> 00:44:28.377

LG가 지금 거의 90%가 넘는
거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.

00:44:28.477 --> 00:44:33.553

그러니까 만약에 1조 벌면 9500억
정도를 어디다 쏟아붓고 있느냐,

00:44:33.653 --> 00:44:36.884

이른바 딥마인드,
바로 인공지능입니다.

00:44:36.984 --> 00:44:41.633

인공지능 쪽에 거의 돈 다
쏟아붓는 게 지금 현재 LG예요.

00:44:41.733 --> 00:44:43.081

SK도 비슷하고요.

00:44:43.181 --> 00:44:47.567

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어떤 새로운
시장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.

00:44:47.667 --> 00:44:49.949

개척자 정신이 필요하게 된 거죠.

00:44:50.049 --> 00:44:51.598

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.

00:44:51.698 --> 00:44:55.647

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
불확실성, 리스크.

00:44:55.747 --> 00:45:00.719

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
달려가는 거죠.

00:45:00.819 --> 00:45:06.698

그게 경제학자 슈페터의 기업가
정신이라는 개념입니다.

00:45:06.798 --> 00:45:09.505

그래서 기업은 아무나
하는 게 아닙니다.

00:45:09.605 --> 00:45:12.207

샘처럼 새가슴은 못 해요.

00:45:12.307 --> 00:45:13.102

다음요.

00:45:13.202 --> 00:45:17.131

네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
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

00:45:17.231 --> 00:45:20.118

딱 한마디만 적어드릴게요.

00:45:20.218 --> 00:45:25.711

기업가들아, 돈 많이 벌지 않았니?

00:45:25.811 --> 00:45:30.165

그러면 기업가들아, 너희가
잘 나서 돈 번 거 맞는데

00:45:30.265 --> 00:45:33.218

이 기업가들아, 좀 썩라.

00:45:33.318 --> 00:45:37.045

진정한 노블레스라면 거기에
결맞은 oblige.

00:45:37.145 --> 00:45:39.251
그러니까 책임, 요구되지 않냐.

00:45:39.351 --> 00:45:40.831
이게 기업가 윤리인 거죠.

00:45:40.931 --> 00:45:43.019
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.

00:45:43.119 --> 00:45:48.152
장학금도 좀 주고 노인정,
양로원, 보육원 좀 쏘고

00:45:48.252 --> 00:45:49.545
이해되겠습니까?

00:45:49.645 --> 00:45:51.964
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아놓지 말고

00:45:52.064 --> 00:45:56.693
국가 공익을 위해서
술선수범 좀 해보세요.

00:45:56.793 --> 00:46:01.451
너희가 돈 많이 벌었으면 노동자들
진짜 힘들게 일한 거 아니냐,

00:46:01.551 --> 00:46:05.429
그 성과급, 상여금 좀
짜주세요, 이런 내용입니다.

00:46:05.529 --> 00:46:07.623
그런데 잘 안 짜주죠.

00:46:07.723 --> 00:46:09.624
이해되죠?

00:46:09.724 --> 00:46:12.009
다음요.

00:46:12.109 --> 00:46:19.052
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봤고 그러면
노동자도 역할은 있긴 하겠죠.

00:46:19.152 --> 00:46:23.748
노동자의 역할은 열심히
일하면 되죠.

00:46:23.848 --> 00:46:25.757
그냥 볼게요, 노동자의 역할.

00:46:25.857 --> 00:46:29.940
당연히 기업에 노동이라는
생산 요소를 제공을 합니다.

00:46:30.040 --> 00:46:32.068
거기에 대한 대가,
뭐라고 그런다고?

00:46:32.168 --> 00:46:33.835
임금을 제공 받죠.

00:46:33.935 --> 00:46:39.007
그러면 이 제공 받은 임금이 당연히
그 가게의 소득이 될 거고요.

00:46:39.107 --> 00:46:42.581
이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를 하겠죠.

00:46:42.681 --> 00:46:44.354
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

00:46:44.454 --> 00:46:45.689
다음요.

00:46:45.789 --> 00:46:48.312
노동자의 권리보장, 노동 3권.

00:46:48.412 --> 00:46:52.436
이건 저희가 앞서서
헌법파트에서 배우고 왔습니다.

00:46:52.536 --> 00:46:59.683
한 번만 다시 빠르게 리뷰해드리면
이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.

00:46:59.783 --> 00:47:03.420
사회권적 기본권에 포함됐었고요.

00:47:03.520 --> 00:47:04.406
기억나죠?

00:47:04.506 --> 00:47:10.067
제1 권리, 노동자는 약자이기
때문에 반드시 단결,

00:47:10.167 --> 00:47:12.249
뭉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.

00:47:12.349 --> 00:47:19.288
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기
위해서 만든 단체가 노동조합이죠.

00:47:19.388 --> 00:47:22.734
줄여서 노조라고 해요,
많이 들어봤을 거야.

00:47:22.834 --> 00:47:27.906
그래서 헌법상 단결권이라고
하고 노동법상 노동조합결성권.

00:47:28.006 --> 00:47:28.965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47:29.065 --> 00:47:30.408
똑같은 말이에요.

00:47:30.508 --> 00:47:31.734
아시겠죠?

00:47:31.834 --> 00:47:36.732
그러면 단결했으면 노조 만들어서
몽쳤으면 무조건 싸웁니까?

00:47:36.832 --> 00:47:37.822
그건 아니죠?

00:47:37.922 --> 00:47:40.018
민주주의 국가입니다.

00:47:40.118 --> 00:47:41.916
사장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?

00:47:42.016 --> 00:47:43.151
협상하는 거죠?

00:47:43.251 --> 00:47:44.312
negotiation.

00:47:44.412 --> 00:47:46.082
교섭권이 인정됩니다.

00:47:46.182 --> 00:47:50.354
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용자,
사장님 이야기하는 거야.

00:47:50.454 --> 00:47:55.208
근로 조건에 관해서 교섭하고
협상하고 약속을 한 게 있다면

00:47:55.308 --> 00:47:58.542
이걸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는 거죠.

00:47:58.642 --> 00:48:01.131
이 단체 협약을 만약에 만든다면.

00:48:01.231 --> 00:48:04.337
그러니까 노동자들과
사장님들이 협상해서

00:48:04.437 --> 00:48:07.638
이렇게, 저렇게 약속한 걸
문서에 쓰는 거야.

00:48:07.738 --> 00:48:11.986
이걸 단체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건
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.

00:48:12.086 --> 00:48:13.101
어려운 내용인가?

00:48:13.201 --> 00:48:15.423
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.

00:48:15.523 --> 00:48:19.672
그냥 약속, 이게 아니고 법적
구속력을 가져요, 이걸.

00:48:19.772 --> 00:48:22.188
무조건 지켜야 되는

겁니다, 오케이?

00:48:22.288 --> 00:48:26.193
그런데 이 교섭이 잘 안 되죠.

00:48:26.293 --> 00:48:28.333
상당 부분 결렬돼요.

00:48:28.433 --> 00:48:30.339
그러니까 교섭이 깨져요.

00:48:30.439 --> 00:48:33.109
한 치 앞도 양보를 안 하거든요.

00:48:33.209 --> 00:48:36.315
노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.

00:48:36.415 --> 00:48:38.103
사장님들은 문제가 많고요.

00:48:38.203 --> 00:48:43.146
그래서 결렬되면
노동자들은 교섭했으니까

00:48:43.246 --> 00:48:45.855
결렬됐으면 더이상 방법이
없을 것 같잖아.

00:48:45.955 --> 00:48:47.281
그게 아니었지?

00:48:47.838 --> 00:48:51.517
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
뭐냐, 단체 행동권이었죠?

00:48:51.617 --> 00:48:54.542
노동 쟁의를 할 수 있는
겁니다, 노동 쟁의.

00:48:54.642 --> 00:48:56.472
가장 대표적인 게 파업이죠?

00:48:56.572 --> 00:48:58.806
태업도 있고 보이콧도 있고

00:48:58.906 --> 00:49:01.891
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 쟁의
방식이 있습니다.

00:49:01.991 --> 00:49:05.542
이거는 불법 시위가 아닙니다.

00:49:05.642 --> 00:49:07.873
이거는 권리 행사인 거예요.

00:49:07.973 --> 00:49:11.409
그래서 제가 헌법 쪽
강의해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.

00:49:11.509 --> 00:49:14.550
길거리 지나가다가 임금인상.

00:49:14.650 --> 00:49:18.112

이런 빨간 띠를 두르고
노래 부르시면서

00:49:18.212 --> 00:49:21.150

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
욕하지 마세요.

00:49:21.250 --> 00:49:24.840

너희 엄마, 아빠일 수도 있고
너희 동네 삼촌일 수도 있어.

00:49:24.940 --> 00:49:27.975

그건 범죄가 아니야,
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.

00:49:28.075 --> 00:49:29.936

보세요, 헌법상 기본권이예요.

00:49:30.036 --> 00:49:31.545

물론 쇠파이프 들면 안 돼요.

00:49:31.645 --> 00:49:37.874

그런데 평화적인 그런 임금인상
투쟁은 단체 행동권의 행사입니다.

00:49:37.974 --> 00:49:39.495

욕하지 마세요.

00:49:39.595 --> 00:49:41.021

아시겠죠?

00:49:41.121 --> 00:49:44.478

이게 노동 3권의
내용이 되겠습니다.

00:49:44.578 --> 00:49:49.857

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
물건을 사서 쓰는

00:49:49.957 --> 00:49:53.804

우리 소비자들은 어떤
역할이 있느냐,

00:49:53.904 --> 00:49:57.331

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,
그런 게 아니겠죠?

00:49:57.431 --> 00:49:59.933

첫 번째, 소비자의 경제 역할.

00:50:00.033 --> 00:50:02.229

재화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죠?

00:50:02.329 --> 00:50:03.166

당연하죠?

00:50:03.266 --> 00:50:06.008

그래서 소비를 통해서
가격 결정이라든가

00:50:06.108 --> 00:50:09.508

자원 배분의 방향을
결정짓는 주인공입니다.

00:50:09.608 --> 00:50:13.984

그래서 경제활동에서
가장 중요한 이 주권은

00:50:14.084 --> 00:50:17.773

우리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
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.

00:50:17.873 --> 00:50:21.680

그래서 이 소비자 주권이
침해되는 것은 이걸 안 됩니다.

00:50:21.780 --> 00:50:22.894

오케이?

00:50:22.994 --> 00:50:25.954

다음 두 번째, 경제학적으로
말할 때는

00:50:26.054 --> 00:50:28.257

합리적 소비가 필요할 거고

00:50:28.357 --> 00:50:33.870

그리고 도덕적으로 말하면
윤리적 소비가 요구되겠죠.

00:50:33.970 --> 00:50:37.842

합리적 소비는 뭐냐, 저희가
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만

00:50:37.942 --> 00:50:42.991

희소한 자원 때문에 선택과
포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고

00:50:43.492 --> 00:50:46.702

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면

00:50:46.802 --> 00:50:49.702

그것은 돈을 합리적으로
효율적으로 잘 쓴 거죠.

00:50:49.802 --> 00:50:54.839

그래서 경제학적 평가만 이야기하는 게
이 합리적 소비인 거예요.

00:50:54.939 --> 00:50:56.022

오케이?

00:50:56.122 --> 00:50:59.436

그러면 윤리적 소비는 뭐냐,
이건 도덕적인 평가죠.

00:50:59.536 --> 00:51:03.733

기왕 돈 쓰는 거 효율적으로
합리적으로 쓰시는데

00:51:03.833 --> 00:51:08.909

가급적이면 환경 같은 것들도
고려하시면서 돈을 써주세요.

00:51:09.009 --> 00:51:11.643

또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

00:51:11.743 --> 00:51:18.797

이른바 나쁜 갑질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은
의도적으로 사지 말아주세요.

00:51:18.897 --> 00:51:20.243

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51:20.343 --> 00:51:25.165

특히나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
그런 기업에 대해서는

00:51:25.265 --> 00:51:31.662

시민단체가 주도되어서 의도적인
불매운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해요.

00:51:31.762 --> 00:51:33.883

또 제가 또 이거
이야기하면 혼날 텐데

00:51:33.983 --> 00:51:37.342

하나만 이야기하면
이제 몇 년 됐죠?

00:51:37.442 --> 00:51:43.223

땅콩 회항 했었던 어떤
모항공 회사, 대한항공.

00:51:43.323 --> 00:51:46.445

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,
그 조OO 아줌마.

00:51:46.545 --> 00:51:49.880

그래서 제 와이프도 어디
여행 갈 때 생각 있나요,

00:51:49.980 --> 00:51:52.598

그냥 아무거나 비행기
예약해서 가잖아요.

00:51:52.698 --> 00:51:57.394

그런데 저도 놀란 게 대한항공은
일단 다 패스했어요.

00:51:57.494 --> 00:52:01.510

가장 싸고 가장 빠른 비행편이
대한항공임에도 불구하고

00:52:01.610 --> 00:52:02.548

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.

00:52:02.648 --> 00:52:04.737

다시는 안 탄다, 재수 없다.

00:52:04.837 --> 00:52:07.664

이게 어떤 의식적인 소비를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52:07.764 --> 00:52:13.301
그런 노동자를 벌레 취급하는
그런 기업 제품은 안 쓸 거야.

00:52:13.401 --> 00:52:14.533
그래서 아시아나 타고 왔습니다.

00:52:14.633 --> 00:52:15.560
조금 더 비쌌거든요.

00:52:15.660 --> 00:52:18.604
그런데도 제 마누라님이
됐어, 결제해!

00:52:18.704 --> 00:52:20.470
그래서 갔다 왔습니다.

00:52:20.570 --> 00:52:22.816
지금은 다 까먹으셨어요.

00:52:22.916 --> 00:52:25.959
저희 와이프는 망각의
동물이어서...

00:52:26.059 --> 00:52:27.988
하여튼 그런 식이죠.

00:52:28.088 --> 00:52:29.447
이해됐죠?

00:52:29.547 --> 00:52:32.326
소비자 역할은 이런 게 요구되고요.

00:52:32.426 --> 00:52:35.962
그러면 여기 테마에
관련된 퀴즈 한번 보고

00:52:36.062 --> 00:52:39.085
이번 주제 마무리시켜드리겠습니다.

00:52:39.185 --> 00:52:40.278
갑시다.

00:52:40.378 --> 00:52:42.948
첫 번째는 체크 표시하는 겁니다.

00:52:43.048 --> 00:52:51.261
1번,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
공급자는 생산량을 뭐할 거냐.

00:52:51.361 --> 00:52:55.775
그냥 공부하는 거
한 번만 다시 그려보자.

00:52:57.347 --> 00:53:00.998
X축이 quantity,
수량이었었고요.

00:53:01.098 --> 00:53:04.767
Y축이 price, 가격이였었죠.

00:53:05.389 --> 00:53:09.823
물건값이 비싸지면
비싸니까 못 사요.

00:53:09.923 --> 00:53:15.555
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
반비례, 역관계죠?

00:53:15.655 --> 00:53:18.068
그래서 수요 곡선 demand.

00:53:18.168 --> 00:53:24.065
거꾸로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
떨면 공급량을 당연히 늘리겠죠,

00:53:24.165 --> 00:53:25.321
이윤이 많이 남으니까.

00:53:25.421 --> 00:53:27.518
그래서 공급 곡선 supply.

00:53:27.618 --> 00:53:28.247
되지?

00:53:28.347 --> 00:53:33.780
그러니 가격이 떨면 공급량은
느는 경향이 있으니까

00:53:33.880 --> 00:53:36.268
늘리라는 신호로
받아들이겠죠, 공급자는요.

00:53:36.368 --> 00:53:37.486
당연한 거 아니에요?

00:53:37.586 --> 00:53:39.953
이것만 기억하면 돼요, 오케이?

00:53:40.053 --> 00:53:44.572
다음 두 번째, OO은
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

00:53:44.672 --> 00:53:46.962
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

00:53:47.062 --> 00:53:49.957
다양한 공공 정책을
만들어서 추진한다.

00:53:50.057 --> 00:53:52.818
이 정책을 만드는 주인공은
당연히 어디겠냐.

00:53:52.918 --> 00:53:55.821
이런 걸 회사가 만들 리가
없잖아, 그렇지요?

00:53:55.921 --> 00:53:57.939

권력기관인 정부가 해야죠.

00:53:58.039 --> 00:53:58.916
됐죠?

00:53:59.016 --> 00:54:01.511
다음 세 번째, 이거 별표.

00:54:01.611 --> 00:54:05.433
이게 교과서 탐구활동에
약간 나오더라고.

00:54:05.533 --> 00:54:08.618
그 개념 편에는 이게
없었는데 탐구활동에 있어서

00:54:08.718 --> 00:54:11.881
혹시 몰라서 쌤이
한마디만 해드리려고요.

00:54:11.981 --> 00:54:14.518
한 번쯤은 들어봤던 용어일 거예요.

00:54:14.618 --> 00:54:15.948
인플레이션.

00:54:16.048 --> 00:54:18.562
디플레이션의 반대말인데 인플레이션.

00:54:18.662 --> 00:54:25.907
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
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.

00:54:26.007 --> 00:54:29.373
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
해요, 물가 상승 현상.

00:54:29.473 --> 00:54:33.968
그럼 물가하락 현상은 뭐겠냐, 이게
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입니다.

00:54:34.068 --> 00:54:38.671
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서술형에서
개념어 쓰는 거 이런 식으로.

00:54:38.771 --> 00:54:40.300
문제가 하나 정도는
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

00:54:40.436 --> 00:54:43.106
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은
겁니다, 아시겠죠?

00:54:43.206 --> 00:54:47.425
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
현상, 인플레이션.

00:54:47.525 --> 00:54:48.941
아시겠죠?

00:54:49.041 --> 00:54:50.421

다음 네 번째요.

00:54:50.521 --> 00:54:55.058

개인은 소비자로서
어떤 정보를 바탕으로

00:54:55.158 --> 00:54:58.312

비용보다는 편익이 큰
소비를 해야죠.

00:54:58.412 --> 00:55:02.007

이건 도덕적인 평가입니까,
경제학적인 평가입니까?

00:55:02.107 --> 00:55:07.364

그럼요, 경제학적인 평가니까 이걸
효율적, 합리적 소비가 되는 거죠.

00:55:07.464 --> 00:55:10.161

윤리적인 소비가 환경을 고려하고

00:55:10.261 --> 00:55:13.810

노동자 인권을 고려하는
그런 형태의 소비였었죠?

00:55:13.910 --> 00:55:14.952

이해가 됐죠?

00:55:15.052 --> 00:55:16.704

좋습니다.

00:55:16.804 --> 00:55:20.920

다음 두 번째, 단어나
용어를 써봐라.

00:55:21.020 --> 00:55:22.775

그러면 써보자.

00:55:22.875 --> 00:55:26.104

1,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

00:55:26.204 --> 00:55:29.553

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
현상을 000이라고 한다.

00:55:29.653 --> 00:55:31.701

이건 지금 현재 시장이

00:55:31.801 --> 00:55:34.391

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
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.

00:55:34.491 --> 00:55:35.997

이게 4글자로 뭐였어요?

00:55:36.097 --> 00:55:39.230

그럼요, 시장 실패 현상이죠, 뭐.

00:55:41.431 --> 00:55:42.495

됐죠?

00:55:42.595 --> 00:55:47.523

다음 2, 위험을
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

00:55:47.623 --> 00:55:53.270

기술혁신 같은 것들을 이루기
위한 스펀터 아저씨의 정신.

00:55:53.861 --> 00:55:57.035

기업가 정신, 되죠?

00:55:57.135 --> 00:55:59.222

이거 완전 서술형 문제죠.

00:55:59.322 --> 00:56:02.826

다음 세 번째, 상품
구매할 때, 나오네요.

00:56:02.926 --> 00:56:07.261

노동자 인권, 환경 보호 등을
고려하는 걸 뭐라고 한다?

00:56:07.804 --> 00:56:10.962

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.

00:56:11.910 --> 00:56:15.264

그래서 용어를 하나만 더
가르쳐드리면 혹시 모르니까.

00:56:15.364 --> 00:56:19.228

이 환경 보호랑 관련되어있는
윤리적 소비를 뭐라고 하느냐

00:56:19.328 --> 00:56:21.475

이걸 녹색 소비라고 그래요.

00:56:21.575 --> 00:56:26.642

이 녹색이라는 글자 나오면 항상
자연환경 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.

00:56:26.742 --> 00:56:27.625

맞지?

00:56:27.725 --> 00:56:32.679

그리고 노동자 인권 같은 것들을
고려하는 소비를 뭐라고 하느냐,

00:56:33.690 --> 00:56:36.247

이건 좀 어이없게 들리겠지만
공식 용어입니다.

00:56:36.347 --> 00:56:38.411

이걸 착한 소비라고 한데요.

00:56:38.511 --> 00:56:39.948

착한 소비.

00:56:40.048 --> 00:56:40.925

아시겠죠?

00:56:41.025 --> 00:56:44.649

환경 고려하는 걸 녹색 소비

00:56:44.749 --> 00:56:49.412

그리고 노동자 인권
고려하는 걸 착한 소비.

00:56:50.257 --> 00:56:53.206

됐고 다음 세 번째요.

00:56:54.025 --> 00:56:56.766

다음에 해당하는 시장의 한계.

00:56:56.866 --> 00:56:59.464

시장 실패를 연결해보라는 거죠?

00:57:00.702 --> 00:57:01.974

첫 번째요.

00:57:02.074 --> 00:57:06.230

사람들이 소유한 자원의 차이 때문에
발생하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?

00:57:06.330 --> 00:57:08.226

누구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

00:57:08.326 --> 00:57:11.565

누구는 자원을 덜 가지고
있는 거니까 소득 불균형.

00:57:11.665 --> 00:57:14.657

4글자로 빈부격차가 되겠죠.

00:57:15.273 --> 00:57:16.466

어렵지 않죠?

00:57:16.566 --> 00:57:17.464

다음 두 번째요.

00:57:17.564 --> 00:57:20.476

노동자와 사장님 간 싸운다.

00:57:20.576 --> 00:57:22.044

두말하면 잔소리 아십니까?

00:57:22.144 --> 00:57:25.154

노사 간 갈등 대립을
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57:25.254 --> 00:57:26.312

되겠죠?

00:57:26.412 --> 00:57:27.656

다음 세 번째요.

00:57:27.756 --> 00:57:33.398

생계 불안, 자아 존중감 등의
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.

00:57:33.498 --> 00:57:35.446

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?

00:57:35.546 --> 00:57:39.158

생계 불안정, 자아 존중감의
문제를 유발하는 건

00:57:39.258 --> 00:57:42.649

당연히 일자리를 잃어서
앞으로 뭐 먹고 살지?

00:57:42.749 --> 00:57:44.064

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?

00:57:44.164 --> 00:57:47.022

가장 관련성이 있는 건
당연히 실업 문제죠.

00:57:47.122 --> 00:57:48.680

일자리가 없잖아.

00:57:48.780 --> 00:57:49.794

됐죠?

00:57:49.894 --> 00:57:54.078

다음 4, 화폐 가치가
하락, 가계 소비 감소.

00:57:54.178 --> 00:57:55.165

나왔네.

00:57:55.265 --> 00:57:57.178

다시 별표.

00:57:57.278 --> 00:58:01.753

화폐 가치가 하락, 그러니까
가계 소비는 감소.

00:58:01.853 --> 00:58:03.795

결국에는 기업의 생산도 위축.

00:58:03.895 --> 00:58:06.314

이게 뭐냐하면 애들아,
이게 인플레이션이예요.

00:58:06.414 --> 00:58:08.572

이건 별표 하나 더
드릴게요, 인플레이션.

00:58:08.672 --> 00:58:10.050

다시 한번 떠들게.

00:58:10.150 --> 00:58:14.360

애들아, 화폐의 가치가
하락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

00:58:14.460 --> 00:58:18.444

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

00:58:18.544 --> 00:58:21.154

이거 아예 경제 강의를 해버리면
좋을 텐데 할 수도 없고.

00:58:21.627 --> 00:58:23.252

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

00:58:23.352 --> 00:58:26.847

물가라는 건 뭐냐,
물건의 가치입니다.

00:58:26.947 --> 00:58:29.460

이런 물건, 상품의 가치요.

00:58:29.560 --> 00:58:33.003

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가
올라간다는 것은

00:58:33.103 --> 00:58:37.313

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만
이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.

00:58:37.413 --> 00:58:41.971

그래서 물가와 화폐의
가치는 반대 관계예요.

00:58:42.071 --> 00:58:47.145

다시 말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
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.

00:58:47.245 --> 00:58:47.904

아시겠죠?

00:58:48.004 --> 00:58:51.409

물가와 화폐의 가치는 역관계입니다.

00:58:51.509 --> 00:58:54.407

이렇게만 기억해주세요, 아시겠죠?

00:58:54.507 --> 00:58:55.839

됐고요.

00:58:55.939 --> 00:59:01.364

다음에 라스트 O, X
해보고 마무리할게요.

00:59:03.738 --> 00:59:08.418

1, 경제학에서
시장이란 눈에 보이는

00:59:08.518 --> 00:59:11.037

구체적인 장소만을
말하는 건 아니죠.

00:59:11.137 --> 00:59:13.367

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들도 많아요.

00:59:13.467 --> 00:59:15.235

가장 대표적인 게 뭐데?

00:59:15.335 --> 00:59:16.948

인터넷 쇼핑몰이야.

00:59:17.048 --> 00:59:18.454

너희 거기 물건 보이냐?

00:59:18.554 --> 00:59:20.091
물론 사진으로는 보이지.

00:59:20.191 --> 00:59:22.407
그런데 실제로 재화가
보이진 않잖아.

00:59:22.507 --> 00:59:25.886
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
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

00:59:25.986 --> 00:59:28.581
바로 주식 시장입니다, 증권.

00:59:28.681 --> 00:59:29.616
아시겠죠?

00:59:29.716 --> 00:59:34.611
눈에 보이는 시장이면 이마트,
현대백화점, 강남시장도 있지만

00:59:34.711 --> 00:59:37.495
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들도 많아요.

00:59:37.595 --> 00:59:38.794
아시겠죠?

00:59:38.894 --> 00:59:40.819
다음 두 번째요.

00:59:40.919 --> 00:59:44.973
시장 가격에 간섭없이도
희소한 자원은

00:59:45.073 --> 00:59:49.097
필요한 사람한테 효율적으로
배분된다, 맞죠.

00:59:49.197 --> 00:59:53.833
굳이 말하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
않는 손의 기능을 그냥 써놓은 거죠.

00:59:53.933 --> 00:59:56.293
이건 0라고 봐야죠, 그렇죠?

00:59:56.393 --> 00:59:58.700
다음 세 번째, 노동 3권.

00:59:58.800 --> 01:00:04.196
그러니까 단결, 교섭, 행동권은
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

01:00:04.296 --> 01:00:09.051
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
보장되는 권리에요.

01:00:09.652 --> 01:00:17.378
마지막으로 또 한 번 떠들면
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됩니다.

01:00:17.478 --> 01:00:18.637

할만하지?

01:00:18.737 --> 01:00:20.410

크게 어렵지 않아요.

01:00:20.510 --> 01:00:21.462

됐죠?

01:00:21.562 --> 01:00:24.157

여기까지가 경제 2번

테마가 되겠습니다.

01:00:24.257 --> 01:00:25.394

강의가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.

01:00:25.494 --> 01:00:29.689

경제가 내용이 많아서 또 우리

친구들이 어렵고 힘들어해서

01:00:29.789 --> 01:00:32.131

길게 길게 하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1:00:32.231 --> 01:00:34.950

다음 시간은 세 번째 테마입니다.

01:00:35.050 --> 01:00:37.624

여기도 내용이 조금

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.

01:00:37.724 --> 01:00:40.663

바로 무역 이론이 나옵니다, 무역.

01:00:40.763 --> 01:00:42.304

환율까지는 안 배우는데요.

01:00:42.404 --> 01:00:45.528

무역 이론을 하나 배운다고

생각하시면 돼요.

01:00:45.628 --> 01:00:46.568

아시겠죠?

01:00:46.668 --> 01:00:48.275

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고요.

01:00:48.375 --> 01:00:50.046

여기서 일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

01:00:50.146 --> 01:00:52.670

수고하셨습니다.